

전남대병원 “3D프린팅 활용한 뼈 대체 시대가 온다”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심포지엄’ 성료

임상의·기업·기관 120여명 참석
3D프린팅 활용 개발 현황 발표

전남대학교병원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는 지난 24일 전남대 의과대학 덕재홀에서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30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기승정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 윤택림 센터장, 박우진 광주테크노파크 메디헬스케어센터장, 최길배 광주시 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및 골대체 의료기기 관련 임상의와 기업, 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 현황 등을 발표했다.

전남대병원 최성원 연구교수가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사업 안내’ 발표를 시작으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3개

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박우진 광주테크노파크 센터장이 좌장으로 나선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장경준 ㈜쓰리디컨트롤스 수석연구원이 ‘인공보철물 제작을 위한 세라믹 3D프린팅 장비 및 소재 기술 동향’을 주제로, 박동호 ㈜유아대표가 ‘환자맞춤형 보철제작을 위한 제품소개’, 박현위 ㈜커스메디 이사가 ‘3D프린팅기반 의료기기 산업기술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윤택림 센터장이 좌장으로 나섰으며, △김성규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척추수술 3D프린팅 현황 (Current Status of 3D Printing in Spine Surgery)’ △이찬영 정형외과 교수 ‘사례 중심으로 보는 3D 프린팅 환자맞춤형 골대체 임플란트를 이용한 인공고관절 재치환술’ △임준혁 정형외과 교수 ‘정형외과(상지) 영역에서의 3D Printing 활용’ △류재영 전남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가 ‘악안면 영역에서의 환자맞춤형 임플란트’를 주제로



전남대학교병원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는 지난 24일 전남대 의과대학 덕재홀에서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전남대병원 제공

발표했다.

세 번째 세션은 김영래 남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정석 ㈜미라인 전무이사 ‘금속3D프린팅을 활용한 의료기기 적용사례’ △장태식 부산대 교수 ‘3차원프린팅 및 소재 개질을 통한 고효율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개발’ △문준모 호남대 교수 ‘치과분야에 사용되는 임플란트 수

술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의 소개’ △정상우 건양대 교수가 ‘골대체 융합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적합성 평가’를 주제로 공유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임상의, 의료기기 제조기업, 의료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협업의 기회를 모색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특히 향후 골대체 의료기기 산

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며 공동 연구 및 사업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윤 센터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분야의 발전과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심포지엄을 통해 의료기기 분야의 최신 기술과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협업의 기회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남대병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시 등의 지원을 받아 2028년까지 약 5년간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40억원, 민자 45억원 등 총 185억원 규모의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사업은 3D프린팅(적층제조)을 활용해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사업은 대학, 병원,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실증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며, 의료기기 분야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병하 기자 byseongha.no@jnilbo.com

조선대병원, 1등급 달성 제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조선대학교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난 25일 발표한 ‘제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30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중환자실은 중증의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전문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곳으로 적절한 시스템과 시기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환자가 적절한 진료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시행한 평가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진료분에 대한 평가지표를 통해 실시됐다.

조선대병원은 종합점수 95.3점으로 전체 평균인 68.5점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획득하면서 중환자실 의료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노병하 기자

화순전남대병원, 신약소재물질 사업화 지원 사격

첨단의료산업화지원센터, ‘BIX2024’ 공동관 운영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블랙버스터급 신약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제약바이오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고부가가치로 주목받고 있는 신약소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30일 화순전남대병원 첨단정밀의료산업화지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플러스-인터팩스 코리아 2024(BIX2024)’에서 제약바이오 분야 기업인 상그리라바이오, 엔피케이, 케이블루바이오 등과 함께 공동관을 운영하고 제품계약과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BIX2024’는 국내외 바이오제약 산업의 모든 밸류체인을 아우르는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 컨벤션 행사다.



첨단정밀의료산업화지원센터는 이번 행사에서 제약바이오 산업 유관 기업과 병원, 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혁신 신약소재물질 사업화 비임상 핵심 실증지원 사업 홍보를 위해 힘을 쏟았다. 또 장비 활용, 비임상시험, 임상컨설팅, 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여 기업들은 공동관 운영을 통해 제

품 계약과 150여 건의 유통, 투자, 협업 상담 등의 성과를 거뒀다.

상그리라바이오는 △NKT 세포 항암면역 세포치료기술 △세포치료제 CDMO 사업 △엑소좀 화장품 및 엑소좀 헤어토닉 제품을 홍보하며 국내외 기업·바이어 등과 116여 건의 투자, 기술 상담의 실적을 거뒀다. 또한 기업과 개인 투자사를 통해 항암면역세포 치료 기술, 엑소좀 제품의 산업화 진행을 논의했다.

엔피케이(주)는 자체 개발한 원료인 K-낙산균, 글로텐분해효소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제품들을 전시·소개했으며 20여 건의 기술 상담을 통해 신규 거래처 발굴 및 OEM/ODM 생산 등 협업 관계를 구축했다.

고령·재발 난치 혈액암 대상 정밀 의료구현을 위한 치료제 및 진단기기를 개발하

는 케이블루바이오는 2022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국제합의분류법(International Consensus Classification, ICC) 진단 및 분류체계 가이드 라인을 준수한 ‘혈액암 NGS 패널’ 제품을 선보여 국내 병원과 기업, 바이어 등 12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NGS 패널을 활용한 혈액암 유전변이 및 타겟 치료제 선정, 신약 개발 등 기업 간 기술개발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첨단정밀의료산업화지원센터장인 신명근 화순전남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고부가가치 신약소재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병원 인프라 연계,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 의료기관과의 협업에 나설 것이다”며 “블랙버스터급 신약 개발 가속화와 응용제품 다각화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